

지역 중심 예술 · 기업 동반성장 빛났다

완주문화재단 지원 '장애인합창단 꽃' · 협력 지역기업 '행복드림복지회', 우수사례 · 우수기업 선정

(재)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이 지역 문화예술과 기업의 협력 기반을 확장한 공로로 '2025 지역 중심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대상'에서 우수재단으로 선정되어 지난 15일 공식적인 시상식을 받았다.

이번 시상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지역문화재단총연합회가 공동 추진한 공모사업으로 문화예술 후원 문화 확산과 지역 기반 협력 모델을 구축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완주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과 기업의 협력 기반을 확장한 공로로 '2025 지역 중심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대상'에서 우수재단으로 선정되어 지난 15일 공식적인 시상식을 받았다.

역에서도 문화예술 기부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더 많은 기업과 군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완주문화재단은 해당 공모사업에 선정되 상

금을 포함한 국비 3천1백만원에 확보하였으며, 지원금은 장애인 예술인의 창작 활동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대한민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기념 1주년 특별 시화전' 완주서 개최

23일까지 완주군청 1층 로비홀서

한강 시인의 대한민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 시화전이 완주군에서 열리고 있다.

노벨문학상 수상기념 시화협회(회장 추원호)는 오는 23일까지 완주군청 1층 로비홀에서 '대한민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기념 1주년 특별 시화전'을 열고 있다.

이번 시화전은 대한민국 문학이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세계 문학의 중심 무대에 오른 역사적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 전국에서 활동 중인 유명 시인 60인이 참여해, 시와 시화를 통해 한국어의 서정성과 문

학 정신을 시민들과 나누고 있다.

협회 측은 "이번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 말과 글로 인간의 마음을 건넨 한국 문화 전체에 대한 세계의 응답"이라며 "시는 오래전부터 민족의 정신을 담은 그릇이었고, 그 정신이 시화전이라는 형식으로 오늘 다시 살아 숨 쉬게 됐다"고 밝혔다.

추원호 회장은 "이번 시화전이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향한 또 하나의 다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한국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고창군 무장향교, 오균호 전교 · 손동환 유도회장 취임

고창군 무장향교가 지난 16일 제43대 오균호 전교와 제34대 손동환 유도회장 취임식을 열었다.

전교(典校)는 향교를 대표하고 유림의 행정·의례 등을 총괄하는 직책이다. 향교 유도회는 향교와 성균관 등 유교 관련 기관의 발전과 유교적 교화, 교육, 학술 사업을 수행하는 유림(儒林) 단체를 의미한다.

무장향교는 조선 세종 2년(1420년)에 지어져 임진왜란 이후인 1600년 중건된 고창 지역의 대표 유교 문화공간이다. 현재 공자를 비롯한 27위의 선현을 배향하고 있으며, 해마다 석전대제, 기로연, 향교 일일학교 등을 통해 유교 정신과 예절 문화를 계승하고 있다.

현재 무장향교는 무장, 공음, 상하, 해리, 성송, 대산, 심원, 아산 일부 등 8개 면을 관할하

며, 600여 명의 유림이 활동하고 있어 지역의 전통문화와 공동체 정신을 지켜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오균호 신임 전교는 "600여 년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무장향교의 정신을 후대에 계승·발전시키고 최선을 다해 고창 유교문화의 전통과 미래를 함께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손동환 유도회장은 "유교의 기본정신인 인의예지를 바탕으로 유림 간 화합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4부 '굿패와 전쟁' (17)

너도 살아 있었구나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평온했고 자유로웠으며 행복했다. 피리를 불고 나면 장구도 치고 싶었고 팽과리도 때리고 싶었으며 북도 치고 싶었다. 그런 것들을 신명나게 치다보면 무겁게 가리앉은 마음도, 수시로 괴롭히는 소양증도 다 날 것 같았다.

한 달여가 지났을 무렵, 고창읍에 국군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는게가 되어 조용히 마을에 내려왔다.

곧 이 마을도 국군이 들어올 것이라 했지만 여전히 마을에는 인공기가 펄럭였고, 자위대원들은 마을을 순회하고 있었다. 외삼촌과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순응하며 그들의 지시를 따랐다.

읍에 국군이 들어오면서 낮에는 자위대원들의 움직임이 뜸했다. 간담이가 큰 마을사람들은 읍에까지 나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물건을 사오면서 최근 소식들을 물고 왔다.

물론 그중에는 자위대에 경도된 사람들이 있어 정보를 탐지하여 자위대와 산으로 올라간 산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하였다.

들려오는 소식들 중에 국군이 들어오자 이전부터 숨어서 활동하던 우익 학생연맹이나 군경유기학회, 구국연맹 등 단체들이 적극 국군을 도와주고 있고 남준 포대의 고창중학교 학생들은 고창학생연합이란 명칭으로 학도의용대를 편성하여 국군과 함께 고창 지역의 인민군 잔당을 소탕하는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는 뉴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남준은 솔깃했다.

앉아서 가족들의 죽음을 슬퍼하고만 있기에는 남준은 피가 더웠다. 가족들을 사지로 몰아간 자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들을 응징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도리였다.



도하였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국군은 고창중학교에 주둔하고 있다고 했다.

남준이 길을 물어 고창중학교를 가고 있는데, 군복을 입은 남준 포대가 저 멀리서 달려왔다.

"남준아!"

그는 죽었다 환생한 사람만 닮은 듯 환호에 가까운 목소리로 남준을 불렀다.

멀리서는 군복을 입어 불렀는데 자세히 보니 강정근이었다. 병력이 피습 당하던 날 낮에 강정근은 고창중학교에 다니는 형을 만나러 간다고 마을을 떠나 남준처럼 목숨을 건졌다.

강정근은 남준을 외락 꺼인었다.

"너도 살아 있었구나, 흐음....."

감격적인 상봉을 하듯 강정근은 남준을 반기워했다. 남준도 강정근이라도 살아 있다는 게 기뻐했다.

"군복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이야?"

"나 학도대에 있어. 형하고 같이 있지. 지금 심부름을 가고 있었어."

"학도대?"

"고창학도호국단의용대의 줄인 말이야. 고창학련이라고도 하고."

남준도 고창학련을 찾아가던 중이었다. 잘된 일이다. 남준은 자신도 고창학련에 가입하려고 읍에 오는 중이라고 말했다.

"잘 생각했어. 우리는 꼭 복수를 해야 해. 저 빨갱이 놈들을 가만 놓아두면 안 된다 고."

강정근은 남준을 데리고 고창경찰서에 가서 불일을 본 뒤 곧바로 고창중학교로 돌아가 남준을 학도대에 소개했다.

나이가 조금 어린 게 흠이었지만 키나 덩치가 걸점을 커버해줘 가입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